

# 현대중국문학, 국내독자들 관심 끈다

## ‘상흔문학’서 ‘신사실주의문학’까지 폭넓은 번역·소개

현대 중국문학의 번역 소개작업이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

1929년 노신 등 20세기 초 중국작가 15명의 작품을 모은 「중국단편소설」이 개벽사에서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국내에 선보인 현대 중국문학작품은 약 1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영미나 유럽 중심의 서구문학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들 현대 중국문학작품 중 대부분은 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개방화 정책에서 파생된 신구갈등과 젊은 세대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역작가들의 작품들이 국내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모처럼 중국 ‘문학’ 열기를 띠고 있는 것.

魯迅, 巴金, 老舍 등 문학연구사적 의미를 지닌 작가들의 작품과 정부의 프로퍼간다의 성격이 짙은 이른바 ‘개혁문학’은 사실 문학적 완성도나 읽는 ‘재미’에 있어서도 국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 작품에 비해 요즘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 ‘상흔문학’이나 ‘법제문학’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작품들로, 문화대혁명에서 최근 중국의 사회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당대 문학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저한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이념을 강요했던 문혁기의 중국문학은 4인방 실각 후 적극적인 문단지원과 신인의 대거 등장으로 활기를 되찾으면서 ‘상흔문학’이라는 독특한 체형문학군을 형성하게 된다. 「황하의 아들」(張賢亮 / 박재연, 들꽃세상) 「남자의 반은 여자」(張賢亮 / 김의진, 미학사) 「시린호트에 지다」(老鬼 / 박재연, 이론과실천) 「사람아, 아 사람아」(戴厚英 / 신영복, 다섯수레) 등이 문혁기 중국사회의 암흑상을 그린 작품들로 평범한 농민들에서부터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겪었던 질곡의 삶을 체제비판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들 중 「사람아, 아 사람아」는 문혁의 발생원인과 그 상처의 치유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한 휴머니즘 장편소설로 역사의 지명도에도 힘입어 현재 5판까지 찍으며 판매에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자의 반은 여자」는 문혁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인의 전통적 윤리관에서 벗어난 애정관과 대담한 성묘사로 화제를 일으키며 중국문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이들 ‘상흔문학’ 계열의 작품들이 과거의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대중국문학 작품들.

상처의 흔적들을 되새기고 있다면, 「사회주의적 범죄는 즐겁다」(王朔 / 박재연, 들꽃세상) 「텐진의 아이들」(柯岩 / 김음표, 장원)의 경우는 현재 중국의 실상 그대로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른바 ‘법제문학’으로 불리는 이들 작품은 일종의 사회소설로 지난 80년대를 통한 전세계적인 냉전체제 해소와 개방화의 기류에 휩싸이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범죄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모호한 삶의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상흔문학’ 이후에 새로운 조류로 등장한 ‘신사실주의 문학’ 계열의 작품들은 낭만적 사랑이나 본원적인 인간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1984년 전후의 애정소설들을 모은 「화선」(魏世祥 외 / 이영국 외, 우아당)과 그 이전의 작품들을 모은 「붉은 콩」(宗樸 외 / 이영구 외, 우아당) 등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체제비판의식과 맥을 같이 한 반봉건정신을 저변에 깔면서도 함축적인 애정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들 작품의 특징.

이밖에도 80년대 「중국작가협회 문학상」 수상작을 모은 「전중국최고작품상 수상작품집」(徐依中 외 / 장지만, 문학사상사)이 2권으로 나와 있어 최근 중국문학계의 동향을 일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서서히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최근 중국문학의 국내유입은 출판계에는 새로운 ‘호재’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또 다른 외국문

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문단 일각에서는 요즘의 추세가 그 한계가 뚜렷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활발한 번역작업을 해오고 있는 박재연씨(외대 강사)는 “현재 국내에 소개된 작품들은 천안문 사태 이전의 작품들로 이후 중국정부의 강경책으로 대부분의 작가들이 절필하거나 해외망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발표된 작품자체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중국문학이 이전에 비해 소재의 다양화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도식성을 완전히 탈피하고 있지 못해 국내 독자들의 취향에 어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유인으로는 약하다는 점도 그들 문학이 지닌 한계로 지적된다. 출판사측에서도 꾸준히 기본부수는 판매되고 있으나 애초의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현대 중국문학작품의 소개가 어느 정도 꾸준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 정소연 기자

## 민족문학 표방한 새 시집시리즈

### ‘한길의 시’ 6권 선보여

비평전문 계간지로 재창간된 「한길문학」이 기성 및 신인의 창작품을 별도로 엮어낸다는 취지의 첫 작업으로 ‘한길의 시’ 시리즈 6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시집들은 고은의 「해금강」, 민영의 「바람부는 날」, 문병란의 「견우와 직녀」, 이소리의 「홀로 빛나는 눈동자」, 박상률의 「진도아리랑」, 그리고 박남준·공광규 등 젊은 시인 18인의 신작시를 모은 「그대들 사는 세상」 등으로, 최근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원로에서부터 90년 데뷔한 신인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의 구체적 현실과 전망의 예술적 성취를 중시”하면서도 이념과 분파에 상관없이 90년대 시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량 있는 신인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인 이 시리즈는 기존 시집보다 큰 A5신 판형과 백색톤의 장정이 외형상의 특징.

일차분 6권 중 2명의 신인작품을 포함한



합동시집은 앞으로 이 시집 시리즈의 향방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한길문학」의 편집방향인 ‘열린 민족문학’의 연장에 선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적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도 준비중.

한길사 / A5신 / 각 140면 내외 / 각 3000원